

## 1. 유기농자재 부가세영세를 적용건의 1차심의결과

### 가 건의

-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건의(2016. 2.10) ; 타당성 인정되나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 필요함을 회신(4.10)
- 농식품부 : 당초 환급으로 검토하였으나 영세를 적용으로 기재부에 상정 (4/29) (건의 내용)  
제3조(영세를적용대상농·축산·임·어업용기자재의 범위)⑥법제105조제1항 제5호 사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자재를 말한다.<별표 3의2> 목초액, 키토산, 천적 ⇒(개선안) 별표 3의 2 「친환경농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」제 37조에 따라 공시인증 기관장에게 공시 또는 품질인증 받은 유기농업자재“를 말한다.

### 나 1차 심의결과

#### <기재부 1차 심의결과>

- 기재부 부가가치세과와 농식품부 금융정책과 및 친환경농업과 관계관 1차 협의
- 기재부 담당자 의견
  - 유기농자재 업체측에서만 건의하고 있지 않는가
  - 친환경 농민들의 불만이나 건의는 없는데 실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가
  - 최근 경향은 부가세 환급으로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왜 영세율로 올렸는가
  - 일단 농식품부 의견을 들었으니 다음 회의때 다시 논의기로 하자
  - \* 일단 간보는 회의 이었으나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지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
- 농식품부 담당자 의견
  - 쉽사리 통과될 거 같지 않으니 친환경 농업인 불편사항이나 보도자료가 있으면 취합해서 설명자료로 만들어 보내 주기바람

### 다 향후 대응방안

- 회원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없으면 계속 지연 예상되므로  
“기획재정부 열린장관사이트 바로가기 ” “규제개혁신문고(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(044-215-2573) 등에 친환경농업인 통해 건의서가 많이 들어 가야 함 \* 각사당 2인이상 건의 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통해 건의요망

## 2.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일원화 및 관리이관 입법

### 가 입법예고 완료

- ◇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: 공시제로 일원화
- ◇ 유기농업자재 관리기관 이관 : 농진청 관리 ⇒ 농관원 이관

### 나 한친농 의견제출

- ◇ 공시제로 일원화에 대한 의견
  - 공시제로 일원화는 제도 퇴보를 의미하고 여러차례 인증제로 일원화하기로 공표했으므로 유기농업자재 인정제로 수정요망
- ◇ 관리기관 이관에 대한 의견
  - 유기농업자재는 농약적 효과 및 비료적 효과자재로 대별 농약 및 비료와 밀접히 연계 분리가 곤란하므로 완전한 일원화가 안될 경우 업계는 중복규제를 받게 됨으로 시행을 보류하고 중복규제가 아닌 합리적 통합방안 연구검토를 거쳐 전문성확보후 신중한 이관이 바람직 함.
  - 한편 비료관리 사무도 농진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통합처리법안에 상정되지 않아 차기 20대 국회에 정부가 재상정할 예정임.

### 다 향후 전망 및 조치

- 입법예고 완료된 공시제로 일원화하느안과 관리기관 이관안은 일단 원안대로 법제처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회원사들과 터부처 반대가 많아 원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
- 20대 국회에서 상임위가 확정되면 농해수위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수정여지가 많다고 보므로 이때 반대의견이 많으면 수정이 불가피할것임  
-지난번 입법예고된 법안에 반대하는 회원사는 의견제출 요망

### 3. 친환경 6차산업 발전협의회 개최결과

#### 가 회의 개요

- ◇ 일시 및 장소 : 16.5.24(화) 농식품부 소회의실(308호)
- ◇ 주요 참석자 : 친환경농업과장(주재) 관련사무관 3인, aT수출부장, 유기농가공수출기업(6개소) \* 한친농 안인 박사 등 20인
- ◇ 목적 및 미션 : 친환경 수출 등 새로운 수요창출이 미흡 인증면적 지속 감소(83천ha)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, 신규과제 발굴 등 목적

#### 나 주요 안건

- ◇ 농식품부 및 aT 등 수출지원사업 소개
  - 자료를 원하는 회원사는 별도 자료송부 예정
- ◇ 기존 지원사업 이외 추가 정책수요 발굴
- ◇ 기타 친환경농업과 수출 가공 연계강화 의견수렴

#### 다 건의

- 유기농자재도 정부 농식품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포함 요망
  - aT : 농자재는 공산품으로 농식품에 포함 곤란
  - 농식품부 : 식품과 별도 지원방안 추후 협의기로 함
- 수출 전용품목 개발 및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등 정부지원 건의
  - 건의사항 타당성 검토 거쳐 기존사업 보완,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화 추진
- 유기농자재 정부지원사업지침 조속 개선 재건의
  - 업체별 벌칙 = 품목별 벌칙으로 조속 변경 건의결과
  - \* 지금은 1개사도 걸리지 않아 현안문제가 안되므로 상반기 지난후 동 사업 평가를 거쳐 개선을 검토 하겠음

### ♣ 친환경농자재관련 보도 등 소식

## 👉 피마자유박 관련 보도의 허와 실

- 단미사료에 피마자박 포함, 리신 분석도 안하고 무책임한 보도...저의 의심 - 농촌진흥청은 최근 피마자유박을 넣은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앞면에 ‘개·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’라는 붉은색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, 관리·감독은 물론 교육·홍보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 최근 이를 섭취한 개·고양이 등이 폐사한 사례가 연합뉴스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. 피마자유박은 값이 저렴하면서도 유기질비료로서의 효용성이 뛰어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·중국·대만 등에서 벼·채소·과수 등 대부분 농작물의 생육촉진용 유기질비료로 사용되고 있다. 더욱이 고분자 단백질의 일종으로 강한 독성을 지닌 리신은 식물체에는 흡수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다. 그런데 리신분석도 안해보고 연합뉴스는 개와 고양이 등이 피마자박 유박비료를 먹고 죽은 것으로 보도했다. 지난 5월초 언론보도 대책회의에서 보도관련기관을 불러 확인한 바 리신을 분석도 안해보고 의당 리신때문일 것으로 추정 발표했다고 한다. 더욱이 국내에는 리신분석기관도 없다.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정확히 원인을 규명한 뒤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.

## 👉 사과 친환경재배 매뉴얼 발간(농민신문 5/23일자 기사)

...친환경농자재협회, 친환경기술 등 소개...

(사)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사과를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자료집을 출간·배포해 호응을 얻고 있다. 이 자료집은 사과를 무농약이나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. 특히 올해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된 후 기존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. 협회는 앞으로 포도·배 등 주요 과수뿐 아니라 블루베리·복분자·유자·오미자·오디 등 소면적 작목의 무농약·유기재배에 관한 자료집도 펴낼 계획이다.



## 👉 한친농 친환경농자재 수출관련 보도(농민신문 5월30일자)

한친농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시장개척사업 및 회원사를 순차적 소개한다.

## 👉 유기농자재정책 ‘규제’보다 ‘완화’가 해법(영농자재신문 5/26일자)

=한친농, 확대임원회의...공시제 일원화·영세율·관리업무 이관 등 ‘난제’ 가혹한 행정처분 등 ‘산 넘어 산’ =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“유기농업자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업체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”“친환경농업과 관련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정부의 몫”이라고 강조했다.

### ☞ 화관법 6.1일 시행 유기농업자재도 해당되나

1톤이상의 화학물질 거래를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. 유기농업자재는 천연물질이므로 해당안된다고 보나 제2조 정의에 “화학물질”이란 원소·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“ 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논란이 예상된다.

### ☞ 김영란법 시행령 공청회...농업계 반대 한목소리

“농축산물 반드시 예외적용” 농자재 등 관련업계 연쇄피해 우려 제기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. 토론자로 나선 농업계 대표들은 법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농산물의 예외 적용 당위성을 주장하면서, 선물의 가액기준을 7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그러나 선진국사례를 들어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어떻게 조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

### ☞ “한국농업의 차별화 전략” 제주대 특강(한친농 안인 박사)

\* 일시 및 장소 : 2016.5.20.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

\* 발표 내용

- 한국농업이 처한 현실, 대내외적 농업여건, 위기인가 기회인가
- 차별화 전략 : 6차산업화+융복합산업화, 수출농업으로 국내 내수 부진 타개, 수입농산물 확대대비 친환경농식품 확산, 고부가가치 농식품 및 농자재 개발을 위한 블루오션 분야(한친농 홈페이지 참조)

### ☞ 2016 귀농,귀촌 박람회 한친농 참여

\* 일시 및 장소 : 6/1~3(3일간) 서울 대치동 SETEC

\* 농식품부 주관, 3만명 참석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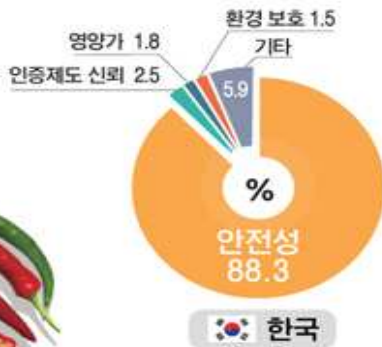
### ☞ 2016 천안농기자재 국제박람회 (KIEMSTA): 11.2~5(4일간)



\* 외국바이어 및 농업인 30만명 동원 \* 친환경농자재 종합관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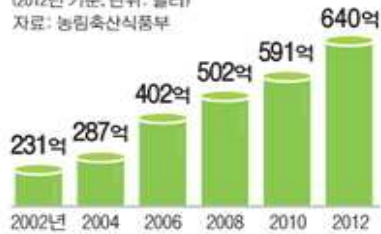
☞ **유기농의 오해와 진실(농민신문 5/27일자 기사)**  
**안전한 먹거리·환경보호 무한가치...직거래·꾸러미 저렴**

**유기농산물 구입동기** (단위:%) 자료: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



**세계 유기식품 시장 현황**

(2012년 기준, 단위: 달러)  
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

**국내 유기농산물 시장 유통규모**

(2014년 기준, 단위: 원)  
 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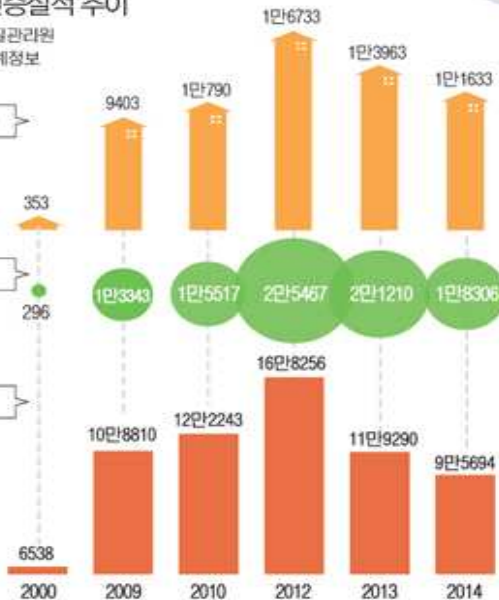
**유기농산물 인증실적 추이**

자료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
 친환경인증통계정보

농가수(호)

면적(ha)

생산량(t)



**\* 기타 자세한 정보는 한친농 홈페이지 참조(www.kefama.or.kr)**